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담당
발 신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담 당	소 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kissingaids@gmail.com
제 목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 'POSITIVE, 긍정하라!' 기자회견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 'POSITIVE, 긍정하라!'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순 서]

- 사회 : 웅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언: 2019년 HIV/AIDS 5대 뉴스
 1. 대전시티즌 감염인 선수 아웃팅과 무단방출 및 성매매 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차별과 미디어의 혐오 -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2. 학내 괴담으로 소비되는 HIV/AIDS - 창구(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
 3. 국립재활원 HIV/AIDS 감염인 입원거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4. 대구교도소, 감염사실 노출하거나 감염인만 따로 모아 방을 쓰면 안 된다는 인권위 권고
 - 손문수(한국HIV/AIDS감염인커뮤니티연합회 KNP+)
 5. HIV/AIDS 감염인들의 곁에서 헌신해온 미리암 수녀 선종 - 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발언1] 손문수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매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및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입니다. 한국에서의 에이즈역사가 30년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HIV/AIDS 감염인 주변에는 차별과 배제의 언행, 편견과 낙인의 시선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도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HIV/AIDS 감염인 입원거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및 대구교도소 감염사실 노출하거나 감염인만 따로 모아 방을 쓰면 안된다는 인권위 권고 등이 나왔고 국가인권위 주관 HIV의료차별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부에 HIV/AIDS 의료차별시정 정책 권고를 하였습니다.

치료제의 발달로 HIV/AIDS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신규감염인 수는 2014년부터 매년 천 명이 넘어 섰고, 감염인을 향한 차별과 낙인은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HIV/AIDS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서조차 진료차별 분리 배제를 당하고 있고 에이즈환자가 요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병원은 2014년부터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UNAIDS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HIV/AIDS의 취약한 집단에 대해 인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HIV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HIV/AIDS(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혐오의 예방 정책이 얼마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해왔습니다

HIV/AIDS 때문에 아픈게 아니고 혐오 때문에 아픕니다. 인권에 대해 기본적인 관점과 시각이 결여된 상태로 에이즈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언론과 정치인 들은 없어야 합니다 HIV/AIDS감염인 인권을 긍정하고 존재를 긍정하고 관계를 긍정해야만 효과적인 HIV/AIDS 예방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질병관리본부(정부)는 에이즈환자 인권복지와 에이즈예방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질병관리본부(정부)는 에이즈환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하는 책임의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갈데없는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요양병원을 신속히 마련해야 될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아야 하고 진정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환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있는 정부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감염인도 함께살자, 에이즈혐오 중단하라!”

"에이즈혐오 조장하는, 정치인은 필요없다!"

"감염인의 생존권, 일할권리 보장하라!"

"감염인은 죄인이 아니다, 19조를 폐지하라!"

[발언2] 소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주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HIV/AIDS에 관한 5대 뉴스를 선정하자고 했는데, 혐오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섯 가지를 선정할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지티브, 올해 슬로건입니다. 저희는 이 슬로건처럼 인권을 긍정하고 존재를 긍정하며, 관계를 긍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한편,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 참 힘듭니다. 지난 7월 한 프로축구단의 노동권침해 사건과 4월과 8월 각각 포항과 여수의 미등록 여성 이주민의 HIV 감염사실을 다룬 미디어의 혐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법적으로도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의 노동권침해 사건에서는 수많은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한 피해선수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며 대중에게 노출시켜 아웃팅을 하였고, 미등록 여성 이주민의 HIV 감염사실을 다룰 때에는 ‘불법체류’ ‘에이즈’ ‘추적조사’ 등의 키워드만을 도드라지게 사용하며 공포를 조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우리의 인권을 긍정하고 싶고 존재를 긍정하고 싶지만, 인권의 사각지대, 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희는, 정부 뿐 아니라 언론과 미디어까지 공포조장을 하고 혐오에 일조하는 현실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언론은, 아웃팅을 하면 안되는 것은 물론, 에이즈에 대해 기사를 내보낼 때 반드시 인권적인 시각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언론가이드라인도 뒷받침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권을 말하길 주저하지 않고, 혐오에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올바른 정보에 입각하여 인권지향적으로 작성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발언3] 창구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안녕하세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창구입니다.

이틀 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입니다.

이 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여,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이라고도 불리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는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 그리고 혐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8일,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 한국교통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학교 기숙사에 “HIV 감염인이 입소했다”며 지금이라도 “피검사를 해봐야 하는것 아니냐”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글은 곧 페이스북 대나무숲 등에도 알려졌고 한국교통대 학생들과 SNS사용자들은 '#긴급'을 붙이면서 글을 공유하고, AIDS와 감염인에 대한 무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가 이 사건에 대응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을 이용해 공포와 낙인을 조장한 게시자를 찾기에 앞서, 한국교통대 본부는 기숙사에 살고있다는 이 감염인을 찾아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하고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멀쩡히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감염인을 색출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수사와 추방의 대상으로 삼으며 HIV 감염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SNS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후 문제의 발단이 된 게시글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으나 한국교통대와 SNS에 퍼진 감염인 혐오와 낙인은 전혀 허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HIV 감염인이 기숙사에 입소했으니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해야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괴담이 SNS구설수에 오르는 과정에는 한국교통대학교의 방관과 부적절한 대처가 있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퍼뜨리고있는 비과학적 낙인과 근거없는 공포심을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진압해야했을 대학은 반대로 이 모든 일이 가상의 감염인의 잘못된 양 색출하려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SNS와 한국교통대학교에게서 무분별한 감염인 혐오를 목격해야했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HIV 감염인들은 더더욱 자신의 몸을 숨겨야 했을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기까지는 공교육의 문제도 매우 큽니다. 지금의 대학생/청년세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HIV/AIDS와 감염인 인권에 대한 성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확하게 받아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후퇴한 성교육 표준안을 이용해 학교에서 성소수자에게 씌워지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해 언급조차 못하게 하고 있으며 HIV/AIDS에 대한 내용은 보건 과목 중 STD를 다루는 부분에서 언급만 되는 수준입니다.

HIV/AIDS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며 단순 접촉이나 공동생활만으로는 전염되지 않

습니다.

HIV/AIDS를 둘러싼 비과학적인 낙인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않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성교육과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작해야합니다. 차별할 자유를 외쳐대는 지금의 혐오 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을 행하는 것이 교육부의 존재 가치임을 새겨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인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음지로 내몰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HIV/AIDS 예방의 길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HIV/AIDS와 감염인은 더 이상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할, 긍정 POSITIVE 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에서 활동하는 윤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매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이자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는 감염인 당사자인 저는 항상 마음이 착잡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입니다. 근데 올해에는 특히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감염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희생해 오셨던 미리암 수녀님께서 돌아가셔서 너무 더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미리암 수녀님은 1971년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1971년도부터 수녀님의 수도원인 서울골롬반병원에서 간호사와 조산사로 일하시면서 목포, 서울, 제주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앞장을 서왔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1978년도에 성매매여성들을위한쉼터 사마리아의 집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루까라는, 루까 오준수라는 에이즈환자를 만나게 되어 1998년부터 HIV/AIDS감염인을 위한 영양소 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던 시기여서 루까는 거의 말기의 에이즈환자였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도 몰라주고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에이즈를 이유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수녀님은 그 사정을 알게되어 일단 그 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마리아의 집에 데려가 임시로 돌봐주었습니다. 그 환자를 돌보면서 수녀님은 에이즈환자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후원자들에게 모금을 하고 당시 김수환 추기경한테도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며 500만원 후원을 받아 방 2칸짜리 전세방으로 HIV 감염인을 위한 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녀님은 올해 8월 돌아가실 때까지 22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고, 에이즈 환자와 같이 살면서 환자가 부르는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갔고 환자가 아프면 언제든 병원을 데려가고 불철주야 환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미리암 수녀님은 22년 동안 쉼터를 운영하며 만들어온 그 역사는 오랜 차별에 대한 싸움과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지금도 에이즈에 대한 차별이나 진료 거부나 수술 거부 등 차별이 심각한데,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도에는 얼마나 차별이 심했을까요.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감염인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에 격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감염인을 병상에 눕히지 않았습니다. 침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감염인은 침대에 누워서 대기하게 하는데, 감염인들은 격리실이 없어서 안된다, 격리할 침대가 없다는 이유로 침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 환자가 대기실에서 의자에 앉아 기다려야 합니다. 또 감염내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타과 입원을 해주지 않아, 안과의 망막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가 안과에서 입원을 거부해 감염내과 병실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뒤늦게 수술을 했는데 이미 실명을 하고 만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거부로 치료거부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수녀님은 그 현장에서 의사들

에게 사정하고 또 병원 관계자들과 투쟁하며 싸워가며 그렇게 22년 동안 환자를 위해, HIV/AIDS 감염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싸워오셨습니다. 그런 수녀님이 올해 8월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서서 저희 역시 너무나 황망하고 아쉽고, 수녀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또 우리에게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헌신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쉼터를 운영하셨지만, 정작 더 몸이 많이 아픈, 마비가 온, 그런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은 아직도 갈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전국에 2천 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있는데, HIV/AIDS 환자를 받아주는 요양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요양병원협회에서는 AIDS환자 입원을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내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2014년 국가가 위탁운영을 맡긴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환자사망사건/인권침해사건이 생긴 이후로 수동연세요양병원과 위탁계약이 취소된 이후로,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환자들은 요양병원이 없어서 종합병원에 다니며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양난민도 아니고 요양 구걸을 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야 합니까?

미리암 수녀님같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어떤 종교단체의 자선사업으로, 이런 요양문제나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에이즈 환자뿐만 아니라 민간요양병원에서 돈이 안 된다고 거부하는, 모든 취약한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국·공립 요양병원을 마련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하고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내년에 다시 또 열심히 요양병원과 감염인의 인권/권리를 위해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국정과제로 공정을 꼽았습니다. 공정? 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HIV/AIDS 감염인들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공정한 세상이 필요합니다. 아픕니다. 아픈데 왜 치료를 안 해줍니까? 요양하고 싶으면 요양을 해야 되는데, 왜 요양 안 해줍니까? 일을 해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합니까? 사람이 숨만 쉬고 살아있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AIDS환자들에게 아무런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왜 치료비 지원을 해줍니까? 차라리 치료비 지원도 해주지 말고, 다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매년 에이즈의 날마다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도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 역시도 아직 아픈 환자입니다.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아직 기력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제가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추운 날, 왜 매년 이렇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요구를 합니까? 비감염인들처럼 똑같이 치료받고 똑같이 요양하고 똑같이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과제로 내놓은 그 공정한 세상, HIV 감염인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위해서도 공정한(?) 세상 만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은 가능하다. 에이즈차별 금지하라.

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는 국공립 요양병원 즉각 마련하라.

2019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 맞이 기자회견문 - POSITIVE: 긍정하라!

12월은 묵은 한 해를 떠나보내는 송년의 계절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12월 1일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로써 더 뜻깊게 다가온다. 2019년은 HIV 감염인과 인권 활동가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기억될까?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를 비롯한 의료차별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감염인을 치료·진료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 비율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 진료·시술·입원을 거부하는 등 차별이 만연하다. HIV 감염인과 AIDS환자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안전하고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과학적 근거 없는 혐오에 의한 의료차별행위를 멈춰야 한다. 특별히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쥐고서 눈치를 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속히 통과시키라.

HIV라는 질병과 감염인에 대한 혐오 또한 여전한 해였다. “HIV에 감염된 이주여성 성매매를 하며 지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는 식의 선정적 보도는 도시 이름만 바꾸어가며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질병에 대한 이해나 감염 예방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이러한 보도 행태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이는 질병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강화할 뿐이다.

우리 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에이즈혐오 확산의 공로를 인정하여 자유한국당에게 혐오정당인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정치인이 에이즈혐오에 동참하고 있다. 극우·보수정당들은 물론이고 민주개혁 정당을 자임하는 정당들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인다. 더욱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혐오 경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세력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 개신교의 눈치를 보며 차별금지법도 균형법상 추행죄도 ‘나중에’로 미룬 지난 몇 해동안 저들이 한번이라도 극우적 행태를 버린 적 있었는가.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만들어 주말마다 청와대 앞에서 혐오집회를 열고 있다. 반인권 소수자혐오에 앞장서는 저들은 민주개혁 세력에게 표를 줄 의향이 없다. 이제라도 회심하고 소수자 인권보호에 나서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HIV/AIDS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는 인정을 받아들였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감염사실을 노출하거나 감염인만 따로 모아 방을 배정하면 안된다는 권고도 있었다.

올 8월에는, 평생을 국내 AIDS 환자를 돌보며 헌신하셨던 미리암(고명은) 수녀님께서 선종하셨다. 성매매 여성과 에이즈 환자와 같은 이들과 평생 함께하셨던 ‘소외된 이웃

의 벗’, ‘에이즈 환자의 대모’ 미리암 수녀님이 실천하신 평생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많은 동료들의 마음을 모아 기원한다.

올해의 구호는 “POSITIVE: 긍정하라!”로 정했다. POSITIVE라는 단어는 HIV 양성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긍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랜 기간 HIV 양성이라는 사실은 감염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꼬리표로 따라붙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고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낙인이 되었다. 감염인의 삶에서 positive는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현실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현실을 돌려놓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다시금 서로의 관계를 긍정하려고 한다. 그동안 부정되었던 우리의 인권을, 종종 스스로 부정해야만 했던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려고 한다. 혐오와 낙인 때문에 부정되어온 우리의 스킨십을 긍정하려고 한다. 우리의 성적 권리를, 우리의 사랑을 이제 긍정하자.

우리 네트워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겠다. 감염인의 성적 실천을 무작정 범죄화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를 폐지하겠다. AIDS 환자가 마음놓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립요양병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아가 HIV/AIDS 커뮤니티에 기반한 요양서비스도 마련하겠다. 정부와 국회도 앞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회에 만연한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행동에 나서자.

2019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HIV 감염인의 존재를 긍정하라!
HIV 감염인의 관계를 긍정하라!
HIV 감염인의 인권을 긍정하라!

2019년 11월 29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